

200자 안내

오빠의 방

송현 지음

1975년 「시문학」 추천완료로 등단한 시인이자 동화작가이며 이른바 FX형 칼럼이라 지칭되는 독특한 형태의 칼럼니스트로 잘 알려진 작가의 첫 소설집. 주인공인 오빠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사랑함으로 인해 앓는 사랑의 열병을 그린 표제작 외에 '마사오와 토끼' '해바라기의 환상' 등 주니어들을 위한 세편의 소설을 모았다.

명상/A5신/168면/3000원

바람난 황제

백시중 지음

수많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 위에 황제처럼 군림하는 대 재벌그룹 총수를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애육과 음모, 배신과 질투 등을 그린 장편소설. 한편으로는 근로자를 착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와 유착되어 있는 양쪽 날개를 지니고, 보다 멀리 날기 위해 비열한 음모와 술수를 가리지 않는 우리나라 기업의 폐단과 실상을 파헤치고 있다.

들꽃세상/A5신/300면/3800원

날마다 새로운 나

김원석 지음

고혈압으로 두번씩이나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한탄하며 살아왔던 작

가가 자아수련(self mind control)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행복을 다시 찾게 된 자전적 경험을 소설화했다. '행복에감소설'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행복은 밖에서, 혹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창조지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전원/A5신/288면/4000원

대예언

고도 벤, 페닉스 노아 지음 / 최현 옮김

노스트라다무스 연구가로 유명한 두 저자의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I·II와 「계시록의 대예언」을 편역한 책.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모든 세기'와 '요한계시록' 등의 고전을 바탕으로 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과학적인 분석과 아울러 근대 점성학이론에 근거하여 20세기말의 지구종말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

범우사/A5신/306면/4500원

시간은 여기 남고 흘러가는 것은 우리들이다

김홍신 외 지음

김홍신, 한수산, 김남조, 김동길, 김후란, 이태영, 이효재, 홍사덕, 구상, 최일남 등 오늘의 대표 지식 18인의 에세이를 모은 책. 월간 여성지 「우먼센스」의 권두에세이에 실렸던 글들을 정선하여 엮었다.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하고 고뇌하는 주제인 사랑, 인생, 허무 등에 대한 철학을 다양한 필자들의 개성있는 문체와 사유를 통해 들려주고 있다.

서울문화사/A5신/204면/3500원

시베리아 횡단열차

서길수 지음

국제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세계의 나그네'로 불리울 만큼 많은 여행경험을 지닌 저자의 소련 기행문. 하바로프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밤낮 없이 6일간을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가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소련의 사회상, 생활상, 풍경 등을 통해 소련의 진면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한우리/A5신/286면/5000원

하느님은 밥이시다

다께나까 마사오 지음 / 김기석 옮김

일본 도시샤 대학에서 기독교윤리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WCC의 산업선교분과 자문회의장을 지낸 바 있는 저자가 '신학과 문화'를 주제로 한 자신의 강의를 모은 책. 밥, 곧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제목을 지닌 이 책은 아시아의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실체를 밝히고 주체적 수용의 새 지평을 열어놓고 있다.

다산글방/A5신/176면/2500원

그날 이후 세계는 아름다웠다

이원근 지음

진리의 등을 전한 禪師들의 행적을 기록한 「傳燈錄」을 소재로 하여 속되고 헛된 욕망들과 싸워가며 삶의 근원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가는 선사들의 이야기를 소설화 한 단편 8편을 수록한 책. 누구나 가슴에 품고 있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들을 불교적 세계관을 통해 풀고자 한 이 소설들은 佛性이란 다름이 아닌 인간보편의 원초적인 인간성임을 역설하고 있다.

인간사/A5신/200면/3200원

어린왕자 그 영원한 세계

김요섭 엮음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총연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김요섭, 법정, 김정빈, 김봉구, 김병익, 민희식, 이영희, 안응렬 등 8인의 저자들의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함께 엮은 책이다. 생텍쥐페리의 작품세계와 인생관, 외국저서의

논평, 작품분석, 주인공에게 보내는 편지 등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어린왕자와 작가 생텍쥐페리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동화문학사/A5신/200면/3500원

여성노동자와 임금

한국여성연구회 외 지음

1990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0%를 육박하고 있다. 이 책은 여성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저임금과 차별임금의 극복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론적 근거 위에서 해명하고 이를 임금투쟁원칙으로 대중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의 공저.

동녘/A5신/196면/3000원

암호명-B. 295, 물넷?

유인철 지음

1985년 군에 입대하여 그해 창설된 특수기동대-일명 백골단에 배치받아 대모진압, 시위주동자체포, 정보수집 등의 활동으로 3년의 군복무를 마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고백적으로 기록한 책. 백골단의 실상과 그에 속한 젊은이들의 내면적 갈등과 고뇌 등이 잘 드러나 있다. '경찰의 중립화와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앞당겨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저자의 집필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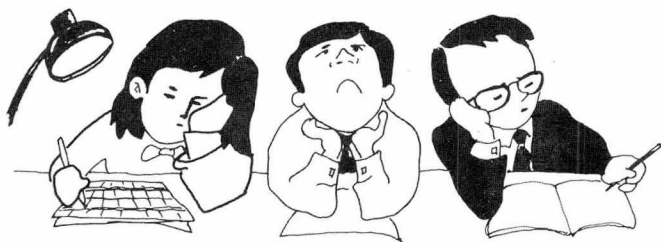
영재/A5신/274면/3800원

사적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안토니 기텐스 지음 / 최병두 옮김

현재 캠브리지 대학 사회학과 교수인 저자가 자신이 개발한 구조화이론에 입각하여 사적유물론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펴낸 책. 사회구성 및 변동에 관한 설명에서 '기능' '적응' 등 기능주의적 용어들을 기각하고 진화론적 역사해석을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마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91 춘계언론취업반 모집요강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 수강예약기간: 3월 23일

무료공개특강: 3월 23일

수강대상: 고졸(예정자) 이상, 전문대, 대졸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한국편집디자인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랑진동 73-3 (인성빌딩 2F)

(代) 812-1715~6

취업인력 정보실 FAX. 814-3387

이삭을 줍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슬같은 그 이삭을 보배로
베어야 하는 인내도 배웠습니다.
가끔은 낮과 밤 구별없는
일과의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칼날같은 업무를 하는,
그러나 자상하신 편집장 님도 만날 것입니다.
진정 활자밥을 먹겠다는,
그리하여 오직 한 길을 가고픈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드리겠습니다.

르크스의 '실천'의 개념을 발전시켜 행동이론적 해석과 구조적 분석을 통합적으로 재수용하고 있는 것이 저자의 이론의 특징.
나남/A5신/310면/5500원

사랑의 교실

이시형 지음

지난해 5월 방송을 시작한 MBC TV의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의 진행자인 저자가 방송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뼈대로 하고 미처 못다룬 내용들을 덧붙여 펴낸 책. 이성교제, 자위행위, 약물중독, 학업문제, 성격, 외모 등 15개의 주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상담 내용과 함께 학부모와 관계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수록했다.

언어문화사/A5신/296면/3800원

느낌표를 찾아서

정채봉 지음

생각하는 동화, 어른을 위한 동화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작가의 '글과 그림과 판화가 어우러진 명상언어집'의 두번째 권. 매사에 감동을 잃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잃어버린 느낌표를 찾아나선다는 내용의 표제작 외에 29편의 짙막하지만 깊은 명상과 철학이 담긴 동화가 수록되어 있다. 김은주씨의 삽화와 송판수씨의 판화도 곁들였다.

동아출판사/A5신/256면/4500원

팝스비화

김광한, 이양일 지음

KBS FM의 인기 DJ와 팝칼럼니스트로 활약중인 두 저자가 함께 펴낸 팝계의 숨은 이야기. 십대에 대머리 폭력단의 일원이었던 앤디 김, 고소공포증 환자인 데이비드 보위, 화장실 변기에서 노래를 취입한 매리 맥 그리어 등 100여명의 팝 아티스트들의 성공담과 고진감래의 경험담 등 흥미롭고 새로운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다.

진선/A5신/318면/4200원

사촌이 차를 샀다길래 나는 교통순경이 됐다

강주현 지음

자칭 '낙서가'라고 주장하며 스포츠신문, 주간잡지, 사보 등에 낙서와 퍼즐을 발표하며 낙서문화의 정착에 관심을 가져왔던 저자의 낙서모음집. 제목 자체에서 풍기는 것과 같이 인간 심리의 숨겨진 면모들과 우리 사회 곳곳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간결한 문장으로 재치있게 꼬집고 있다. 풍자와 해학의 표현장르로 자리잡아가는 낙서의 묘미를 맛볼 수 있다. 개그맨 전유성씨의 평이 함께 수록.

명진/A5신/192면/3300원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가

노향림 지음

1970년 「월간문학」 신인상 당선으로 데뷔한 시인의 에세이집. '지상의 풀꽃들이여,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강물은 평행선을 그으며 흐른다' 등 51편의 에세이가 6부로 나뉘어져 수록되어 있다.

절제된 감성과 깔끔한 문체가 돋보이는 글을 통해 '치부를 드러내는 사랑이 정직한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겨레/A5신/256면/3800원

KAL 007을 추격하라

후쿠모토 가즈야 지음 / 문대찬 옮김

1983년 탑승객 269명을 태운 대한항공 007편 보잉747점보여객기가 소련 영공 사할린 근해에서 실종, 격추된 실제사건을 소재로 한 추리소설. 향로이탈, 미국의 첩보기, 위장폭격기, 미소 전자전의 블랙홀의 회생양 등 사건의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과 이에 대한 논증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KAL기 사건을 규명하고자 했다.

아리랑/A5신/282면/3800원

계간지

시와 시학(91년 봄호·창간호)

[권두정담] 한국현대시와 그 연구 어디까지 왔나(김종길/김용직/오세영)

[오늘의 지성 13인이 애송하는 한편의 시] 김성우 외

[신작특집] 고은/허영자/조태일/이가림/오탁번/조오현/정희성/김진경

[기획논문] 한국근대문학의 성격再考-근대문학의 상한선과 하한선 문제(주승택)

[특집 1] 현대시인집중연구(박용래 편)

[예술칼럼] 음악(김미애) 미술(이석우) 무용(김영태)

[문제작 재조명] 소월詩「산유화」(서정범/정현기/김삼주/김유선)

[70년대 정예시인선] 감태준 외 17인

[특집 2] 다산 정약용 집중연구(박석무/심경호/정운채)

[논문연재] 동서시인의 정신세계, 산과 바다①(조동일)

[해의시] 미국의 젊은시인 두사람(정한용/Joe Wood)

[해의시단동정] 독일통일문학의 한 표정(전영애) 英佛시인에 대한 신간 몇권(유자효)

[교과서 수록시 평설] 중학국어편① 정지용·고은·신경림의 시(김재홍)

[논문분재] 전후시에 있어서 모더니즘적 특성과 그 가능성①(한계전)

시와시학사/A5신/436면/5000원

문학과 사회(91년 봄)

[특집] 세계 변동을 보는 우리의 눈

▲말과 정치(김영수) ▲페레스트로이카 법정 에 보내는 '소수의견'(정운영) ▲지식의 관점에서 본 마르크스 체제(북거일) ▲동유럽의 체제 변화와 그 이념적 대응(홍윤기) ▲탈통일의 욕망과 정치경제학(김진석)

[소설] ▲불의 얼굴(장편연재·5)(임철우) ▲얼음의 집(정찬)

[시] 이시영/안수환/장영수/김휘승/유하/김기택/이진명

[오늘의 한국문학] 황지우의 길, 벗어남과 돌아옴의 변증법(성민엽)

[서평] 서준섭/송희복

문학과학사/A5신/378면/4500원

반년지

시와 시인(1990년 하반기·창간호)

[권두평론] 감동의 문학을 향하여(김병익)

[오늘의 시인] 신경림

▲강물과 바람의 노래(김영호) ▲신경림, 그의 생애와 작품세계(윤중호) ▲내가 뽑은 10편의 시와 그 얘기(신경림)

[집중수록시인] 오규원/김남주

[수록시인] 김규동/김희수/김진경/윤재철/박남철/윤중호/고재중/양정자/정영상/황인숙/유하

[시인의 시론] 강은교/도중환

[시인의 고향] 충남 강경(故 박용래)(조재훈)

[시와 시인을 찾아서] ▲중국 연변의 교포문단(최용린) ▲錦江의 시인들(이강산)

[서평] 김태현/박해경/박해현

정민/A5신/290면/3800원



각종 지류(紙類) 도매 소매

高麗紙業社

●서적지 ●모조지 ●아트지 ●엠보싱지 ●레자크지

고려지업사는 단행본 출간에 필요한 모든 종이를 다량 확보하여 소량의 종이도 최선을 다해 보급해 드리는 데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수기가 되면 제지회사로부터 감수해야 했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대중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서적출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수표동 47-6 천수빌딩 807호 전화 271-2581, 2 팩시밀리 269-8890



다물기획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 표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성이 가득한 책을 만듭니다. ”

좋은 책은 알찬 내용과 창조적인 디자인과 독자와의 즐거운 만남입니다. 표지디자인 뿐만 아니라 본문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도 독자를 배려하는 정성이 넘칠 때 좋은 책이 주는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다물기획은 좋은 책과 보다 많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찾는,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모인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10-83 전화 : 292/4546, 294/9639 Fax : 294/6443